

# 2026년 제2차 성애원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

일 시 : 2026. 6. 26(금) 14:00

장 소 : 성애원 회의실

참석자 : 위원장 김 정  
위 원 박 희, 최 희, 조 미, 이 민

- 안 건 1. 2026년 2분기 사업보고 및  
2026년 3분기 사업계획 보고
2. 기타안건
- 가. 태풍대비 나무 전지작업
  - 나. 동래로타리클럽 후원(대문옆 담장 및 화단 공사)  
- 2026.6.29 ~ 2026.7.1
  - 다. 육아휴직원(정 술) 복직(2026.7.1)
  - 라. 시설운영위원 임기만료 건(2023.9.8~2026.9.7)

## <회의내용>

위원장 :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 
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.  
우선 2026년 2분기 사업실적 및 3분기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박 희 :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.

위원일동 : 재청합니다.

박 희 : 아이들은 잘 지내나요?

자료를 보니 민이는 퇴소를 했고 우는 휴학을 했네요

위원장 : 네, 민이는 3월 10일에 LH청년매입주택을 얻어 자립을 했고  
우는 입학하고 며칠 지나 운동 중 왼쪽 발목 인대가 찢어져  
수술후 휴학했습니다. 아무래도 체대이다 보니 수업받기가 힘들어  
휴학할수 밖에 없었습니다.  
요즘은 운동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 
다. 2학기 복학예정입니다.

최 희 : 취업한 아이도 있네요.

위원장 : 네, 곧이는 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현이는 학교 내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

박 희 : 다들 열심히들 잘 살고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.

위원장 : 애와 진이가 학폭에 연루되어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도 각각 다녀왔고 다녀올 예정입니다. 가해자라고 하지만 제가 볼때는 학교내에서 선도가 될 법 한데 요즘은 학폭으로 신고를 해 버려 학교에서도 개입이 안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.

박 희 : 그렇죠! 저도 그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

위원장 : 자식이 피해자인 부모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학급에서 같이 생활해야 하는데 아이들과 화해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 부모님들이 서서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 다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.

최 희 : 어른들이 중심을 잘 잡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해야 하는데 너무 너무 안타깝네요.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.

민 학생은 잘 지냈어요? 벌써 4학년인데 어떻게 지내나요?

이 민 : 안녕하세요. 저는 요즘 경찰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.

박 희 : 그럼 이제 아르바이트는 안 하나요?

이 민 : 네. 공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

최 희 : 화이팅입니다.

이 민 :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.

조 미 : 벌써 대학 4학년이 3명이나 되어 아이들 스스로도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원에서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의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.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.

박 희 : 감사합니다. 곧 여름방학인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?

위원장 : 네, 한국에탁결제원에서 올해도 500만원을 4월에 지원해 주셔서 302호 아이들은 5월에 영도에 있는 펜션에 1박 2일 캠프를 다녀왔고 201호 아이들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올 계획입니다. 나머지 방 아이들은 20세 이상이 많아 개인 스케줄로 인하여 다같이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보류중입니다. 다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.

최 희 : 네, 아이들 모두가 즐거운 여름방학과 휴가를 보낼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 자료를 보니 나무 전지작업을 많이 하였네요. 비용도 꽤 들었을텐데요

위원장 : 구청 건축과에서 작년부터 위험건축물이라는 공문을 보내 주셔서 도로변 담장 쪽 큰 나무와 성애원 내 큰 나무들은 거의 전지작업을 하였고 담장 담쟁이덩굴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. 좋은 만남이라는 봉사단체에서 도와 주셨는데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.

박 희 : 정말 감사한 분들이시네요. 작년에는 태풍이 심하게 오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올해는 어떤 태풍이 올지 걱정이 되긴 하네요. 안전을 위해서 비용은 좀 들으셨겠지만 참 잘 하셨습니다. 사고가 나면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으니까요.

조 미 :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동래로타리클럽에서 4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셔서 대문 옆 담장이 지은 지 오래되어 틀어져 떨어져 있어 담장과 화단정리 공사를 6월 29일부터 3~4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. 집이 오래 되다 보니 고쳐야 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지만 후원자분들과 봉사자분들께서 늘 관심과 사랑으로 도와 주셔서 조금씩 고쳐 가며 지내고 있습니다.

최 희 : 정말 애쓰시네요. 아이들 돌보기도 힘드실텐데 환경정비까지 하셔야 하고,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. 후원자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.

박 희 : 네, 저도 면목이 없습니다. 후원자 개발에 좀더 힘써 보겠습니다.

위원장 : 감사합니다.

조 미 : 감사합니다.

이 민 : 감사합니다.

위원장 : 다음은 직원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. 자료를 봐 주십시오.

정 술 생활지도원의 육아휴직 대체근무직원으로 김 영 선생님께서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근무해 주셨으나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시게 되어 육아휴직중이던 정 술 선생님이 복직 계획을 앞당겨 2026년 7월 1일부로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.

최 희 : 참 고맙고 다행입니다.

위원장 : 네.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. 요즘 직원 채용하기가 매우 힘든데 흔쾌히 복직을 앞당겨 주셨습니다.

박 희 : 정말 다행입니다.

위원장 : 네, 다음은 시설운영위원님들이 임기가 2026년 9월 7일로 만료가 됨에 따라 연임을 부탁드리려 하였으나 구청에서 장기간의 연임을 지양하라는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본의 아니게 신임 시설운영위원님들로 구성해야 할 것 같아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.

위원장 : 저는 오랫동안 성애원 운영위원님으로 계셔 주셔서 누구보다 성애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의지가 되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.

박 회 : 아닙니다. 능력있으신 신임 운영위원님들을 모셔 더욱더 성애원의 발전을 위해 일해주시면 됩니다.

최 회 : 네, 저동 동감입니다.

위원장 : 네, 그럼 아쉽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 
아직 신임 시설운영위원님들이 위축이 되지 않아서 3차 시설운영위원회는 시일을 앞당기겠습니다.  
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박 회 : 네, 알겠습니다. 여러모로 참 업무가 많으시네요  
늘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.

최 회 :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 봐도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 참 보기 좋습니다. 아이들 잘 키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
위원장 : 많은 분들께서 성애원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도와 주셔서 아이들이 무탈하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.  
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.

조 미 : 더욱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

박 회 : 위원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.  
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폐회하기를 동의합니다.

위원일동 : 재청합니다.

위원장 : 위원님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폐회하기를 선언합니다.  
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2026년 제2차 시설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 
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 
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.

2026년 6월 26일